

과연 ‘인간’은 ‘동물’보다 우월할까?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인간은 왜 동물보다 잘났다고 착각할까

장 프랑수아 마르미옹 지음, 김지현 옮김

질문이 도발적이다. ‘인간은 왜 동물보다 잘났다고 착각할까’라는 책 제목이 눈길을 잡아끈다. 질문은 동물도 인간만큼 잘난 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으로 인간은 동물보다 못한 면도 많으니 동물을 우습게보지 말라는 뜻인 것도 같다. 관점을 바꿔 동물은 인간을 어떻게 생각할지 사유해보라는 점잖은 충고이기도 하다.

프랑스 심리학 잡지 ‘르 세르르를 프시’의 편집장을 역임한 장 프랑수아 마르미옹이 펴낸 ‘인간은 왜 동물보다 잘났다고 착각할까’는 흥미로운 책이다. 저자는 지금까지 이색적이면서도 주위를 환기시키는 제목의 책들을 발간했다. ‘내 주위에는 왜 멍청이가 많을까’, ‘바보의 세계’ 등은 적잖은 화제를 낳았다.

이번 책은 인간의 관점보다 동물의 관점에 방점



을 두고 쓰여졌다. 과연 인간은 동물보다 우월할까,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자신있게 대답하기는 어렵다.

간단한 사례를 들어보자. 인간은 개와 비교해 청각이나 후각이 발달하지 않았다. 미세한 소리도 개는 들을 수 있고 먼 거리에서도 냄새를 맡을 수 있다. 개의 청각과 후각은 인간의 그것과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

질주하는 말의 빠르기는 어떤가. 말할 필요도 없이 인간과 비교불가다. 독수리의 시력은 인간보다 훨씬 탁월한데, 높은 상공에서도 작은 먹잇감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다. 신체적인 비교와 달리 감정적인 부분은 어떤가. 일반적으로 감정은 주관적인데 인간은 자신의 감정만 진정으로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어떤 동물들은 인간의 뇌 구조와 유사하고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다. ‘인간 이외의 동물이 느끼는 감정도 인간의 감정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영장류가 웃는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고 그것은 인간의 웃음을 닮았다. 저자는 “영장류도 웃는다는 보고가 있고 개도 웃는다고 집

작된다”고 언급한다. 최근에 새롭게 드러난 것 가운데 하나는 쥐가 행복감을 느끼거나 간지럼을 타는 순간 초음파로 웃는다는 사실이다.

저자는 부정적 감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특히 야생에서 포식자의 먹이가 되는 설치류는 불안감을 강하게 느낀다. 항불안제 효능 등을 실험할 때 설치류 대상이 많은 것은 그런 연유다.

부정적 감정에 과다하게 휩싸이면 심리 장애로 전이되는 사례는 다양한 동물에서 찾을 수 있다. 동물원에 갇히거나 주인을 잃은 반려동물에게서 병리적 불안이나 ‘우울’ 증후군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동물사회에서도 가정 폭력이 존재한다. 암탉은 서열을 정리하기 위해 부리로 쪼는 행위를 한다. 일명 ‘패킹 오더’라고 일컫는데 우리말로 하면 ‘모이를 쪼는 순서’ 또는 ‘우열순위’라는 뜻이다.

수컷이 무리 안에서 다른 구성원들에게 공포를 주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늑대의 대장부부는 유모 역할(먼저 태어난 암컷이 새끼를 돌보는 행위)을 하는 늑대에게 폭력을 가한다. 저자는 이 같

은 행위는 “다른 암컷을 물어뜯거나 서열을 환기시켜 스트레스를 줌으로써 불임을” 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한다. 그레이트 우두머리 암컷만 생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꿀벌은 조직화된 공동체로 집단지성을 발휘한다. 벌집의 육각형 모양은 동물행동학자들에 따르면 ‘자기 조직화’로 설명이 가능하다. 구성원들 상호작용에 의해 자체적으로 질서를 만들고 조직화하는 것을 일컫는다. 또한 꿀벌은 동료에게 꽃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그들의 안의 상징적 소통을 한다. 연구자들은 꿀벌의 정교한 인지능력에는 “경로 최적화, 개념 학습, 관찰을 통한 물체 조작, 혁신” 등이 해당된다고 본다.

책을 관통하는 주제는 동물을 안다는 것은 곧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이해의 다른 이름은 공존이며 그것의 출발은 오해와 편견을 털어버리는 데서 출발한다.

<북다·2만1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인간은 동물보다 우월하다고 믿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동물도 인간 못지않은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진짜 혁신이다

문용식 지음

프로와 아마의 차이는 무엇일까. 어느 분야에서든 뛰어난 성과를 내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같은 조건, 같은 일을 하더라도 기대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 같은 차이는 무엇일까.

IT벤처 1세대로 IT기업 창업, 경영에 매진했던 문용식 전 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은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혁신’이라고 강조한다.

아프리카TV 창립자이기도 한 문용식 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이 레거시 시스템의 혁신방안을 담은 책을 펴냈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진짜 혁신이다-디지털 선도국가 부활의 길’은 제대로 일하는 법에 초점을 맞췄다. 저자는 NIA 원장으로 재직 시 문재인 정부의 주요 디지털 정책에 대해 제안하고 추진한 바 있다.

저자에게 우리나라가 정보화의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단언한다. 왜 그럴까? 시스템은 낡았으며 어공(어짜두 공무원)과 늘공(직업 공무원)은 일하는 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늬만 혁신이지 진정한 의미의 혁신은 아니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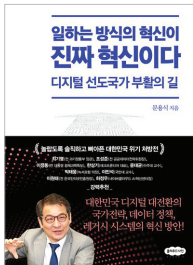
유의미한 혁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게 혁신의 본질이자, 디지털 선도국가로 부활할 수 있는 길이다. 저자는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디지털 정책의 성과와 한계, 어공과 늘공의 행태와 문제점에 대해 소상히 기술하고 있다.

한편 최기영 전 장관은 추천사에서 “정부에 대한 고언이 가득하다”며 “쓸쓸한 만큼 좋은 약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조성준 전 공공데이터전략위원장은 “대한민국이라는 환자의 병상일지이자, 치료법을 제시하는 처방전”이라고 언급했다.

<클라우드나인·2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경이로운 한국인

장클로드 드크레센조 지음, 이소영 옮김

우리나라에서는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나가는 손님에게 잘 가라는 인사 대신 ‘도 오세요’라고 말을 건넨다. 처음 온 손님을 단골로 삼고 싶은 마음과 함께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존재하는 인사다. 한국인의 특별한 정서가 담긴 이 상황이 외국인의 눈에는 ‘손님한테 미련이 많은 가게 주인’으로 보이거나 보다.

프랑스 문학평론가이자 번역가, 엑스마르세유대학에 한국학을 창설하고 주임교수를 역임한 장클로드 드크레센조가 자신이 느낀 ‘경이로운 한국인’의 이야기를 전한다.

끊임없이 한국을 향한 열정을 표하며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한국 문화를 번역해 프랑스에 알리고 있는 ‘한국 덕후’가 보는 한국인은 어떤 모습일까.

‘왜 자꾸 많이 먹으라고 할까?’, ‘도대체 몇 차까지 가는 거지?’, ‘전 국민이 중매쟁이’ 등 한국에서 지내면서 본 한국의 문화와 습관, 관습, 언어는 신기하다 못해 경이롭기까지 하다고 표현한다.

저자는 식당, 병원 등 여러 장소와 가정이나 사회의 다양한 상황에서 만난 한국인의 모습을 고찰한다. 1부에서는 한국인의 언어 습관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2부에서는 한국인의 식사 습관과 음식을 이야기한다.

3부와 6부에서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옛 관습을 지키고 장례와 제사 절차를 지키는 한국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4부는 ‘K-오지랖’이라는 신조어로 다시 주목받는 한국인들의 친절함을 설명한다.

5부는 어디서나 ‘빨리빨리’를 외치는 한국인의 성정을, 마지막 7부에서는 글로벌 무대에서 위상을 자랑하는 한국과, 이를 이뤄낸 한국인의 모습을 강조한다. 책은 한국과 프랑스에서 동시에 출간됐다.

<마음의숲·1만80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마릴린 먼로 그리고 케네디 형제

이상돈 지음

1950년대 할리우드의 가장 빛나는 별이었던 마릴린 먼로. 흑백영화에서 컬러영화로 넘어가던 미국 영화산업의 황금기, 마릴린 먼로의 화려한 금발과 레드립은 단순한 ‘섹스 심벌’을 넘어 ‘성(性)의 자유’를 상징했다.

‘마릴린 먼로 그리고 케네디 형제’는 마릴린 먼로의 삶과 죽음의 과정을 추적하며 은폐됐던 진실을 들춰내는 책이다. 이상돈 작가는 특히 당시 미국 최고의 권력자 케네디 형제와의 관계에 주목했다. 권력과 얽히게 된 마릴린 먼로의 의문스러운 죽음은 사회의 욕망과 갈등 그리고 그 사이에서 생겨난 모순의 결과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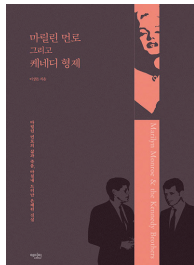
불우한 어린시절을 거쳐 우연히 배우가 된 마릴린 먼로는 남성들이 지배하는 할리우드에서 영악하게 자신의 영역을 넓혔다. 먼로는 자신의 몸이 최고의 상품임을 알았고, 할리우드를 장악하고 있는 남성들에게 아낌없이 던졌다. 책은 그를 남성 우위 시스템의 피해자이자 그 덕분에 스타가 된 수혜자라고 평가한다.

문제는 먼로가 성공할수록 권력의 여독과 더 깊숙이 관여하게 됐다는 점이다. 먼로는 케네디 형제와도 염문설을 뿌렸다. 케네디 대통령의 마흔다섯번째 생일에 핑크빛 드레스를 입은 먼로가 생일축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은 지금도 회자될 정도다. 하지만 이 때문에 먼로는 케네디 형제의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되고 만다.

“8월 4일 로버트 케네디는 브랜트우드에 있는 먼로의 집을 찾았고, 그날 밤 먼로는 죽었다.” 겨우 서른여섯의 나이, 사인은 수면제 과다복용이었다. 수많은 의문과 의혹에도 불구하고 권력 앞에서 사람들은 입을 닫고, 증거는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를 사랑했던 사람들의 간절한 추적 끝에 은폐됐던 진실이 하나둘 밝혀진다.

<에디터·2만8000원>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예남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5년 4월호

2025년 3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예술 꿈나무들의 등용문 호남예술제 70주년

- 1956년 창설, 60만 명의 꿈 키워온 예술 대제전
- ‘글로벌 스타’ 활약 호남예술제 수상자들
- 화보로 만나는 호남예술제 70년사



호남 예술 제



공간의 재발견②
어뽁서웁
대학자 고봉의 서원
선비정신, 전통문화 배움터로 변신



우리동네 미술관을 소개합니다④
무안군 오승우미술관



유럽 소도시 기행①
‘진짜’를 만나는 즐거움,
독일 본 Bon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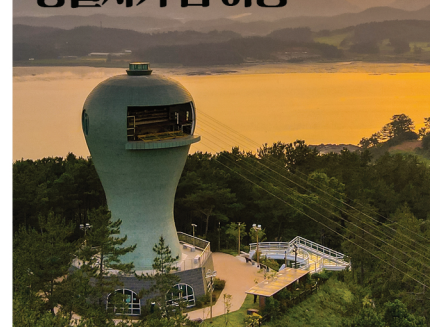


예향 초대석

식물 참모습 그리는 식물학 일러스트레이터
이소영

“결에 있는 식물과 더불어 행복해지면 좋겠어요”

예향과 함께하는 남도투어⑥ 따뜻한 봄날 당일치기 섬 여행



문화계 화제
예술 놀이터 만드는 기업들 ‘뚝딱의 미술관’